



축산정책의 개선방향

류 제 창

건국대 축산대교수, 경제학박사

한국축산경영학회 회장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자면 인구, 경제력, 군사력, 정치안정, 국민의 정신수준등의 조건이 세계적인 수준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공통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있다.

그런데 강대국이나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국민들의 정신적인 자세가 선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이용하고 여분은 수출을 하게 된다.

〈표 1〉 식량자급도

○ 전체식량 자급도

연 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 타	주 곡 (쌀+ 보리쌀)
65	93.9%	100.7	106.0	27.0	36.1	100.0	100.0	100.0	102.1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96.4
71	71.2	82.5	91.8	11.8	18.6	82.6	100.0	103.6	84.9
72	70.8	91.6	93.2	7.3	13.8	85.1	100.0	100.0	92.1
73	69.4	92.1	82.9	5.3	12.4	75.2	100.0	100.0	89.5
74	70.3	90.8	78.4	4.9	10.3	84.5	100.0	100.0	87.3
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0.0	93.9
76	74.1	100.5	97.9	4.5	6.7	74.4	100.0	100.0	99.8
77	65.1	103.4	53.4	2.3	6.2	67.5	100.0	100.0	91.8
78	72.6	103.9	119.9	2.1	6.0	59.3	100.0	100.0	106.4
79	59.8	85.7	117.3	2.4	3.4	43.4	99.8	89.3	90.7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3	87.3
81	43.2	66.2	72.7	2.7	6.1	29.7	100.0	89.1	67.3
82	53.0	93.7	85.9	3.4	4.9	32.4	100.0	22.5	91.8
83	50.2	97.7	119.9	6.0	2.7	25.7	100.0	18.1	100.2
84	50.5	101.0	122.9	0.0	3.4	24.5	100.0	2.7	103.6
(계 획)									

〈표 2〉 경지이용상황

연도	경지면적		이용면적		농가호당경지면적			국민1인당경지면적		
	증감률	증감률	이용률	이용률	답	전	답	전		
	千ha	%			a					
65	2,256	3.9	3,560	157.8	90.0	51.3	38.7	7.96	4.54	3.42
70	2,298	△0.6	3,478	151.3	92.5	51.3	41.2	7.31	4.05	3.26
71	2,271	△1.1	3,100	136.5	91.5	51.0	40.5	7.13	3.97	3.16
72	2,242	△1.3	3,076	137.2	91.4	51.4	40.0	6.93	3.89	3.04
73	2,241	-	3,049	136.0	91.5	51.5	40.0	6.81	3.84	2.98
74	2,238	△0.1	3,096	138.2	94.0	53.3	40.7	6.69	3.79	2.90
75	2,240	0.1	3,144	140.4	94.1	53.6	40.5	6.46	3.68	2.78
76	2,238	△0.1	3,174	141.7	95.8	55.2	40.6	6.24	3.60	2.64
77	2,231	△0.3	3,033	135.5	96.8	56.5	40.3	6.12	3.57	2.55
78	2,222	△0.4	3,001	134.5	99.9	59.0	40.9	6.00	3.54	2.46
79	2,207	△0.7	2,909	130.9	102.1	60.6	41.5	5.87	3.49	2.38
80	2,196	△0.5	2,765	125.3	101.8	60.6	41.2	5.76	3.43	2.33
81	2,188	△0.3	2,774	126.3	107.8	64.4	43.4	5.65	3.38	2.27
82	2,180	△0.3	2,678	122.4	109.2	65.7	43.5	5.54	3.33	2.21
83	2,167	△0.5	2,698	123.8	108.3	65.8	42.5	5.42	3.29	2.13

또 부족한 것은 수입으로 충당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본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해마다 감소해 오고 있다.

〈표 1〉 식량자급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년전에 65년도에 전체양곡 자급도가 93.9%이던 것이 84년에는 48.7%로서 계획인 50.5%보다 훨씬 떨어졌고,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 임무를 50%밖에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70년도에 2,298천 ha였던 것이 13년뒤인 '83년도에는 전국토 면적 9,909,106ha 중 22%에 불과한 2,167천 ha로서 13년동안에 131천ha가 감소하여 매년 평균 1만 ha의 경지감소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는 해마다 대전시 인구정도가 늘어나고 가축의 사육두수도 늘어나는데 곡류자급율의 향상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 경작지를 활용한 곡물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전국토의 66%인 6,553,713ha의 활용으로 우유와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업으로

전환시켜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토지자원의 여건에서 불가피 축산중심의 농업정책 즉 축산정책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1. 축산정책의 목표

축산정책의 주요목표는 우리나라 국민이 필요한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축산경영의 적정소득(適正所得)이나 적정이윤(適正利潤)을 보장 유지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 5년동안의 우리나라 축산물중 소와 쇠고기의 수급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소사육 현황과 가격실태

1) 소사육과 쇠고기 수급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81년도에 불과 1,312천두였던 것이 '84년도에는 무려 1,000천두가 증가한 2,317천두로서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하고 말았다. 물론 두수증대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4년동안에 엄청난 두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정

〈표 3〉 연도별 소 사육현황, 수입 및 쇠고기생산, 소비 실적

구분		연도	80	81	82	83	84
소비실적 (kg千M/T)	1인당		2.6	2.4	2.7	2.9	2.6
	총량		100.0	93.2	106.5	115.5	107.0
사육현황 (천두)	한우		1,361	1,312	1,526	1,940	2,317.7
	젖소		179.8	194.2	228	275	334.4
	소계		1,540.81	1,506.21	1,754	2,215	2,652.1
도입현황 (두)	육우	우		9,531	9,636	65,675	
		송	14	15,488	21,334	6,325	
		계	14	25,019	30,970	72,000 ※	13,359
	젖소계		4,390	—	9,507	10,579	3,975
생산량 (千M/T)			93.1	69.3	61.5	66.1	83.0
쇠고기 수입량 (千M/T)			6.9	23.9	45.1	49.4	24.0
자급률 (%)			83.1	74.2	57.7	57.2	77.6

※ 증모우 2,000두불포함 ◎ 한우는 육우포함된 수치

부의 증식계획과 지나친 쇠고기 수입 및 육우도입 그리고 양축농가의 번식열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두수의 과잉현상을 초래하여 가격폭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외에도 교통부가 주관하여 외국인용 쇠고기로서 이용할 호텔전용 쇠고기의 과다한 수입 및 유출이 또한 국내쇠고기 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쇠고기의 수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농수산부가 원해서 수입하는 것과 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기획원이 불가안정이란 명목으로 요청하여 수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산 정책당국자의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은 짐작이 가는 바이지만 경제기획원 담당자와 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설득작전을 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양측가는 갖고 있을 것이다.

수행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또한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세우고 있는 쇠고기 자급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민은 생산비이하의 소값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를 키울 자본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몰고 왔으나 소가 적정두수 이상으로 증가할 때에는 반사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바람직하고 신축성있는 축산정

책이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었지 않겠는가?

2) 소값과 생산비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에 처한 소값의 폭락은 수요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내의 소 사육두수가 지난 국회에서 거론 된것과 같이 최근 282(젖소포함)만두라는 사상 최대의 두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술한 바와같이 교통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등 여러곳에서 쇠고기 수입에 작용을 하고 있어서 산발적으로 수입 쇠고기의 공급량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외국에 다녀오는 방문객들까지도 고기 덩어리를 들고 오는 이상한 풍조때문에 농민들만 근육을 치루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얼마나 벌고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최근 몇년동안의 가격변동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우가격의 변동상황은 '83년도의 큰소(400kg기준) 숫소의 경우 1,520천원 했을때 생산비는 1,437천원으로 두당 이윤 83천원이 발생하였을때 불가안정이란 경제정책의 경직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49.4천 M/T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수입을 시행하였고 74천두의 비육우를 수입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필요해서 수입했다고 정당화하겠지만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

(표 4) 한우 가격 변동 상황

(단위 : 원)

년월	구분	송 아 지		큰 소 (400kg)	
		암	수	암	수
1983		1,000,000	909,000	1,663,600	1,520,400
1984		650,000	651,000	1,326,100	1,430,900
1985.	1	517,000	574,000	1,165,600	1,289,200
	2	519,000	575,000	1,161,600	1,269,600
	3	473,000	541,000	1,118,400	1,192,800
	4	443,000	515,000	1,079,600	1,146,800
	5	364,000	462,000	965,000	1,060,000
	6. 8	344,000	433,000	936,000	1,044,000

(표 5) 한우, 유우 및 육우의 경락가격 (지육)

(단위 : 원 / kg)

월	구분	한 우	유 우	육 우
'85.	1	5,457	5,071	5,141
	2	5,451	5,078	5,143
	3	4,915	4,372	4,385
	4	4,726	4,088	4,202
	5	4,494	3,901	4,048
	6. 14	4,098	3,624	3,478

으로 소의 사육두수가 홍수와 같이 넘치고 있는 이때 수출도 번개불 같이 대책을 강구했어야 앞뒤가 맞는다고 볼 수 있겠다.

'83년을 정점으로 '84년도에 생산비 이하인 1,430천원, '85년 1월 1,289천원, 6월 8일 현재에는 1,044천원으로 생산비의 상승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83년도 생산비 기준으로 약 4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암소의 경우 '83년도에 1,663천원 하던 것이 727천이 떨어진 936천원에 이르고 있어 '83년도의 암송아지 가격 백만원보다도 7만 4천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그러므로 '83년도에 정부 장려에 힘입어 한우의 장래를 밝게 전망하고 시작한 양축가는 오늘에 와서 빗더미 위에 올라 앉게 되었으니 농민의 판단착오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극심한 피해이고 정부의 쇠고기 수급정책의 차질이 가져온 결과를 부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송아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83년도에 있

어서 한우 송아지 평균 생산비는 700천원 수준이었으나 5두미만의 경영규모에 있어서는 약 800천원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8십만원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암송아지 가격은 전술한 바와같이 1백만원, 숫송아지는 909천원 이어서 10~20만원의 두덩이윤을 보았기 때문에 적정이익 이상을 보장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4년도에는 암, 수 모두 650천원 수준으로 생산비보다 15만원 적자를 보게 되었고, '85년도 1월에는 52~57만원 수준으로 생산비보다('83년도기준) 22~28만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6월 8일 현재에는 생산비 보다 45만원 내지 37만원이나 적자를 내고 있으며, '83년도의 가격수준에 비하면 65만원 내지 47만원이 떨어진 상태로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땅에 떨어지고 74년도의 소 파동과 같이 송아지 밀도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 오고갈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지극히 우려하는 바이다.

(계속)